

# 광양시, 연등빛 4월은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 추천

## 에코아트힐링투어, 야경투어, 단체코스 등 요일 따라 다채로운 테마 운영

광양시가 연등빛 4월,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를 추천했다.

광양시티투어는 순천역에서 출발하는 안내코스와 광주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광역코스 '광양여행 가는 날' 2개로 운영된다. 안내코스는 에코아트힐링투어(월~목), 야경투어(금·토), 단체투어 등으로 운영되며 광역투어는 매월 특색 있는 코스로 1~3회 운영된다.

안내코스 중 에코아트힐링코스 참가자는 순천역(9시) 및 광양읍터미널(9시 30분)에서 차량에 탑승해 백운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게 된다.

숲캉스를 즐긴 후에는 광양불교기독교회관에서 점심을 먹고, 이어진 일정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팀 관사 등

을 방문한다.

일정은 광양읍터미널(16시 30분)을 경유해 순천역(17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야경코스는 참가자는 순천역(16시), 중마관광안내소(16시 30분)에서 차량에 탑승해 이순신대교 홍보관을 관람하고 이순신대교거리타운에서 저녁을 먹게 된다. 이어 배알도삼정원, 윤동주 유교 보존정병국 가옥, 선사인해변공원 등을 방문해 빛나는 광양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일정은 중마관광안내소(21시)를 경유해 순천역(21시 3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광양시티투어 안내코스는 10명 이상 인원 예약 시 운행하며, 참가 희망자는 투어 3일 전까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유선(061-794-8804-5)으로 예약해야 한다.

단체투어는 원하는 코스와 구성원끼리

단독 투어가 가능한 투어로 참가 인원은 15명 이상이다.

단, 관광지 4곳 이상, 안내 식사 1식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며 투어 7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안내 시티투어 이용요금은 일반 5천 원, 군인·경로·학생 4천 원, 장애인·미취학아동 3천 원이며,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광역코스 '광양여행 가는 날'은 월별 특화코스로 운영되며 금호고속 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 또는 유선(062-360-8502)으로 예약하면 된다.

기사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광안내'의 '시티투어'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시는 에코아트힐링, 야경, 단체투어 등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



의 투어를 지향한다"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순천역에서 출발하는 안내코스와 광주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광역코스로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의 깨알 같은 해설과 함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광양여행을 선사할 광양시티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마랑항이 변했다! 새로워진 놀토수산물시장 12일 개장 풍성한 먹거리, 수산물 등 반값으로 즐기고 행복은 두배로

2025년 제9회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2일 토요일 강진군 마랑항 중앙파재 일원(마랑면 미항로 152)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올해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신선한 수산물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개장식은 12일 오후 2시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성공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목포MBC 라디오 '즐거움 오후 2시'의 현장 녹화방송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며, '미스터트롯' TOP1 안성훈, '미스트롯' TOP4 미쓰김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AI캐릭터 변환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디즈니·지브리풍의 캐릭터로 변신하는 이색 체험을 제공하며, 현장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도토리 캐리커처 또는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스틸데코를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을 배치했다. 지역특

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신선한 수산물 요리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신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기존 관람석 중심의 공연 방식에서 벗어나 야외 테이블이 배치된 새로운 무대 구성을 도입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랑 전망대에서는 원데이 클래스와 시음회 등 특별 이벤트가 준비 중이다. 푸르탑 공간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까막섬과 고금대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와 LED바다분수가 어우러져 마랑항의 밤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뿐만 아니라,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연계하면 신선한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새로워진 마랑놀토수산물시장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나주시, 2025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전남 지자체 유일

### 환경 교육, 디지털 기술 융합한 농촌 녹색 전환 유도... 경력 단절 여성, 환경 전문가로 양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환경 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라남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민과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 학습 내용은 '자원 순환 지도사 자격 취득', '온마을 재활용 마스터클래스', '미디어아트\*분리배출(RE:VISION)' 등이다.

시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참여자들의 창의적 사고,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지역 환경 전문가로 육성해 이들 주도하에 농촌 마을의 녹색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역 마을, 학교, 단체와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 참여해 '교육-실천-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여성 인재를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 중심의 평생학습도시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합평군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합평군은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일부터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 합평군, 만성질환 예방 '앞장'...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 이동 어려운 관내 어르신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 자가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자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 예방에 필요한 실천 방법을 배우는 한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건강증진 효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평군은 라텍스 밴드를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과 아로마 발 마사지 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도 함께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20-2436)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군수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균등한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평/전평춘 기자

영암군자원봉사센터가 민·관 협력 자원봉사단체인 '두드림봉사단'과 추진하는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 마을을 이달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오래되거나 망가진 마을 외벽에 산뜻한 벽화를 조성해 마을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벽화 작업은 두드림봉사단이 재능기부로 진행하고, 5~10월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 영암군자원봉사센터, 벽화 그리기 사업 참여 마을 모집

### 두드림봉사단과 함께 추진... 읍·면서 신청받아 2개 마을 선정

벽화 그리기 공모에는 영암군 11개 읍·면 마을이 참여할 수 있고, 벽화가 그려질 곳은 마을회관·빈집·골목길 벽면 등 공공성·상징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마을은 이장, 마을대표가 신청서, 벽면 소유자 동의서, 주민 동의

서, 벽면 사진 등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을 중에서 벽면 상태, 주민참여 의지, 접근성, 향후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2개 마을이 선정된다.

특히, 두드림봉사단은 벽화 작업 시 마

을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혜성 영암군자원봉사센터장은 "두드림봉사단과 함께 하는 이번 벽화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의 좋은 사례로 남도록 하겠다. 많은 마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장성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축산업 허가·등록제 참여 농가·법인 대상... 행정복지센터 접수

장성군이 지역 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용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농가·법인이다. 한옥우·낙농·양돈·양계·오리 등 축종은 물론 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도 포함된다.

기존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이달 11일까지 축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